					G-A-6
제목	국문	건강관련 행위가 사회계급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role of health behaviou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health			
저 자 및 소 속	국문	손미아 1, 오상용 1, 배상수 2, 최중명 3, 윤태영 3 한림대학교 산업의학센터,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영문	Son Mia1, Oh Sang-Yong1, Bae Sang-Su2, Choi Jung Myung3, Yoon Tae Young3 *Hallym University Occupational Health Programme1, Hallym University2, Kyung Hee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건강증진]	발표자	손미아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1. 목적

건강관련행위(health behaviours)는 오랫동안 질병의 주요 원인들의 하나로 고려되어왔으나, 그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일부 학자들은 건강관련행위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Adler et al, 1993), 다른 여러 학자들은 건강관련행위가 건강과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연관성에 혼란변수로 작용을 하지 못하며(Davey Smith, 1990, 1991, 1991a, 1994 and 1997a, Marmot et al 1991), 오히려 건강관련행위자체도 물질적인 조건이나 구조적인 조건들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acintyre, 1997).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강관련행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건강관련행위가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관련행위가 직업,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유병률과의 연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2. 방법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1995 년도 국민건강조사에 참여한 총 5805 명중, 20-64 세이면서 현재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3441 명 (남자 1987 명, 여자 1454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병상태의 지표는 조사당시 2 주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만성질환상태' 로 정의하였고, 자신을 건강하지 않거나 또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를 '주관적인 불건강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Logistic regression modeling 방법을 이용하여 직업,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유병상태와의 관련성에 건강관련행위(음주, 흡연, 규칙적 식사, BM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았다.

3. 결과

남녀 모두, 육체적 작업자들(Manual workers), 저 학력 집단, 저 소득 집단에서 만성질병과 '주관적인 불건강상태' 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이나 가구소득변수보다 더 컸다. 건강관련행위가 직업,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유병률과의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었다. 한편 남녀모두,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고, 비만이 있는 집단에서 만성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뢰구간이 매우 넓어 유의성이 높지는 않았다. 또한 육체적 작업자들(Manual workers), 저 학력 집단, 저 소득집단과 같은 낮은 사회계급의 집단들에서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건강관련행위들(흡연, 운동안하는것)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연관성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났다.

4. 고찰

이 연구는 건강관련행위가 직업, 교육수준, 가구소득으로 표현되는 사회계급과 유병률과의 연관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강관련행위 그 자체는 이들 사회계급 및 유병률과 아주 미약하게나마 연관이 되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건강관련행위도 결국은 사회계급구조와 관련되어서 바라보아야 하며,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